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시련을 인내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시험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고전 10:13).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시험의 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놀라울 정도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인신제사는 매우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쪽같은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의 깊은 고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나무와 도구를 준비하여 아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 가까이 이르러 종들을 떼어 놓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이삭은 종들을 대신하여 마치 종처럼 나무를 짊어졌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그와 함께 걸입니다. 그 때에서야 이삭은 침묵은 깨고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 알 수 없는 말을 내놓고는 다시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갑니다.

2. 순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척척 준비해 온 일을 실행해 옮깁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자 잡는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무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오른 이삭은 결코 어린 소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기에 함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여호와와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임할 복이 선포됩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불순종과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처럼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심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했습니다(레 18:21).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거기에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이었을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나무를 짊어지고 결박당하길 거부하지 않은 이삭의 순종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아들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롬 8:32).